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법답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유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com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세울 '나' 없다면 모든것에 자유로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합니까

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인 학생입니다. 화가 날 때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힘이 들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 학생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흘러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군요. 그래서 얘기하겠는데, 나 아닌 내가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모두 그런 겁니다. 내가 없다면, 내세울 내가 없다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생각이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끼는 마음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누가 좋다. 어떻게 돼서 기쁘다고 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지어낸 것인데, 내가 지어놓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속상해 하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깥으로 다가오는 것에 속아서 울고 웃는 내가 참아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금강석같이 움직이지 않는 참나의 자리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나는 마음에 속지 않고 담담히 지켜볼 수 있는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유로울 겁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전자에 입력된 구정물을 새 물로 바꾸어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 씀씀이와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음을 잘 싸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두들 타의에서만 꼭 고달리며 찾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복으로 나가서는 나를 발견하기 어렵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다 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나, 주인공을 믿고 (참나, 주인공은 또다른 이름입니다)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 행동 하나 하나 하는 거, 효과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서 하게 한다. 내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뛰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모든 것을 학생을 이끌고 가는 근본 뿌리인 주인공에 맡기며 살아가길 바래요.

선업도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문 저는 뉴에이지 운동, 최면, 잠재의식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고 선업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이 쫓고 악업을 짓게 되면 선업이 쫓으니 평생, 아니 세세생생 벗어날 수가 없으니라. 그러니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놓아라.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 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공덕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내세워 봤자 제대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 나라가 살고 돌아가는 그 자체는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좋고 나쁘다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모든

위대한 것 보고 굽신거리지 말고 거지 보고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책들을 읽다 보면 큰스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이며 에너지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므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큰스님께서 좋은 업도 업이므로 공하다고 하신 부분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 누구인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증오하거나 딱 막아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수가 없는 겁니다.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옆의 나무가 스쳤다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가 부러진 건 자기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어쩌서 옆의 나무 잘못입니까? 옆 나무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원망이 돌아가고 증오가 돌아감으로써 항상 악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선업 짓는 것이 몇 일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악업에 속하죠.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악업은 물론이

저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뿌리에서만 할 수 있다고 믿고 관(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카가 너무 말썽을 피웁니다

문 스님께 항상 삼배 올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덟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너무 말썽을 피워서 친구들의 격정이 큼니다. 공부 안하는 건 말 할 게 안 될 만큼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하는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는 데다가 더 어려운 건 타이거나 설명을 해줘도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수련회도 보내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그냥 가슴만 치고들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코너에서는 손 쓸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며 너무 늦었다고 한답니다. 지금 올케는 걱정이 너무 커서 신경성 병들어서 헤어날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꼭 답변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스님, 건강을 소원하면서 어지러운 말을 접했습니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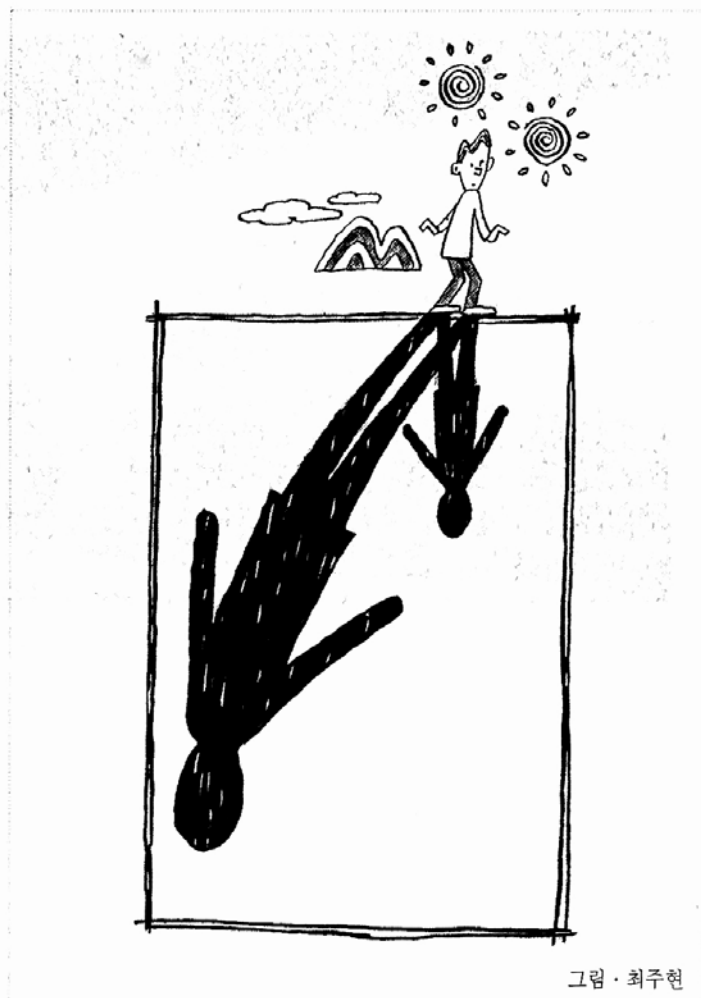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해 삼배를 올립니다.

답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고 또 심으니까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가 또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의 쫓발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마음의 자리는 내가 탄생한 근본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는 부모님을 형성시킨 자리요, 형성시키는 데

에너지가 배출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 말입니다. 외박을 하고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천차만별로 부모들의 속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쫓발 하나가 그것이 다 대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

력입니다. 한 생각 한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에도 갑니다.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른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 만 마음은 물 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쫓발 하나를 진짜로 믿고 위아래를 등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 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상대방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질 않게 되죠.

예전에 어느 집 아들이 나가서 외박을 하고 본드를 들이마셔서 노랑게 돼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 가서 만날 빌어도 선생님들은 퇴학시킨다고 그러자 여기를 오게 됐는데 이것은 한이 된 거죠. 3대 독자가 그러니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지나가나 정말 진실로 말하며 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큰 김치 향이리를 모두 내놓고 씻어서 옮기고 있는데 아들이 오더니 "어머니, 제가 좀 옮겨 드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어머니, 그동안 속 많이 썩혀드렸죠? 이제 속 안 썩혀드릴게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게 됐으니까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 애도 그 애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입력시킨 수많은 의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 하나 풀려나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입력된 것은 과거에서부터 그 아이를 이끌고 온 그 근본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그저 아이가 나가서 안 들어와도, 또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겉으로는 아이에게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무조건 그 걱정거리로, 그것이 나온 그 자리에서 말하게 놓아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연을 맺게 한 것도 당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과거에서부터 얽혀있는 이 인연을 풀어놓고 저 아들이 건강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당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지극하게 관해 나가신다면 그 아이의 마음과 풀이 아리게 연결된 그 자리에서 풀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통증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한어해석>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주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책!

마명보살이 대승보살의 길과 그 공덕을 설한 책!

부처님을 닮아 가는 마음



자현 스님 지음
 사륙판/240쪽/5,000원

효도, 수행의 자세, 보살의 마음가짐, 보시, 자비, 올바른 수행, 일상생활의 지혜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일반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대한 경전 속에서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생활 속의 이야기들로 녹여낸 이 책은 수행과 삶의 지침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구이리집 한역/황봉 역
 신국판양장/422쪽
 15,000원

대장엄론기행

이 경은 각종 역사와 전기, 우화, 비유, 인연, 본생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불교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즉 삼보 공경, 지계, 보시, 소욕, 다문, 인욕 등의 공덕을 설하여 우리 모두 대승보살의 불도를 닦는 데 정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빌딩 3층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